

##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지지적·통제적 양육행동: 5개국 비교 연구\*

이 선 이\*\* · 이 여 봉\*\*\* · 김 현 주\*\*\*\*

본 연구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등 5개국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지와 통제가 부모 및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청소년 자녀에게 더 지지적이고 덜 통제적이며, 아들보다 딸에게 더 지지적이고 덜 통제적이어서, 모녀관계에서 지지적 특성이 가장 강하고 부자관계에서 통제적인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로부터 시작한다. 이 연구를 위해서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6년에 실시한 5개국 설문조사자료를 사용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한국사례에 대해서는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으며, 다른 국가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5개국 모두에서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더 지지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모가 아들보다 딸에 대해서 더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하였으나, 자녀 성별의 효과는 부모 성별의 효과만큼 뚜렷하지는 않았다. 통제적 행동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에서만 성별 효과가 나타났다.

**핵심 단어:** 부모자녀관계, 청소년, 성차, 부모 지지, 부모 통제, 국가 간 비교

### I. 서론

현대 가족은 많은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산업화 이후 가족의 사회화 기능과 정서적 지원의 기능이 강화되어 왔으나(파슨즈, 1955),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 본 논문은 2007년 4월 한국청소년개발원(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사회학회가 공동주최한 국제학술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and Socialization in Adolescence"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자료를 제공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좋은 조언을 해 주신 학술회의 토론자와 논문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 교신저자,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 E-mail: sunilee@ajou.ac.kr

\*\*\*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 E-mail: yblee@kangnam.ac.kr

\*\*\*\*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 E-mail: kimhj@cau.ac.kr

약화되거나 사회로 이양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엘킨드, 1999). 맞벌이 가족의 증가, 이혼의 증가<sup>1)</sup>와 한부모 가족의 증가<sup>2)</sup> 등과 같은 변화는 현대사회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규범이나 부모자녀 간 관계에도 변화를 수반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부모자녀관계의 약화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과 지원의 감소(엘킨드, 1999), 사랑의 보금자리로서의 가족개념(Lasch, 1979)의 쇠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우려 섞인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반면에 부모자녀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의 빈도가 감소하긴 하지만, 관계의 질 자체는 예전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방식은 다소 변화하였으나,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관계임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Demo, 1992).

한편,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부모의 양육방식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과거의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부모의 일방적인 통제와 훈육, 자녀의 복종이 강조되었으나, 오늘날 그러한 양육방식은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자녀 간 긍정적 관계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 많은 연구자들의 견해이다. 반대로 민주적이고 지지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의 적응과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이러한 지지-통제 차원의 양육행동이 지니는 효과는 매우 크다. 청소년기는 독립적 정체성과 자립심을 확립해야 하면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해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Fitzpatrick and Caughlin, 2002).

본 연구의 목표는 이러한 양육방식 및 부모자녀관계의 내용에 부모의 성별과 청소년 자녀의 성별이 각각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맞벌이 부부, 이혼 및 한부모 가족의 증가와 더불어 어머니-양육자, 아버지-부양자라는 전통적 구분이 점차 약해지고 있지만, 어머니 역할과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성별에 따른 자녀의 가치나 역할 기대도 비슷한 전환을 겪고 있다. 자녀의 존재 의미가 가족의 후계자나 노후 부양자로서가 아니라 애정 어린 양육의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아들에게 매기는 가치와 딸에게 매기는 가치의 차이가 적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딸에 대한 일상적 태도와 상호작용 방식에는 여전히 차이가 잔존해 있다. 본 연구는

1) 한국의 이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68,279 건에서 2005년에는 128,468건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통계 DB).

2) 한국에서 한부모 가족은 1995년 960,000명에서 2005년에는 1,247,000명으로 증가하였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이러한 가족관계의 전환과 연속의 맥락에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부모의 성별에 따라 자녀에 대한 지지·통제 차원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지지·통제 차원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가?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개발원<sup>3)</sup>이 2006년에 5개국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 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참조). 본 연구의 관심의 초점은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 있다. 다만, 국가 별 비교를 통해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의 실태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더 나아가 부모 및 자녀 성별의 영향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과 함의를 얻고자 함이다. 세계화와 도시화,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국가 간 차이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 가족제도의 변화방향이 서구권의 변화방향을 따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역시 서구 국가들과 유사한 모습으로 수렴할 것인지, 동양권 국가들과 유사성을 지니고 서구 국가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혹은 한국만의 독특한 모습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구와 아시아의 5개국에서 동일한 설문지를 기초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보는 것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국가별 차이를 분석한 연구(윤인진·임창규·정재영, 2007)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양육방식이 미국, 독일, 스웨덴의 양육방식에 비해 덜 민주적임을 발견한 바 있는데, 그러한 차이가 어머니의 경우에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과 사회적 배경,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관계에서 성별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한국의 현재적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의 지지와 통제 차원

역사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내용과 방법은 변화되어왔다. 특징적으로 말하자면, 과거에는 자녀의 복종이 강조되고 훈육을 중심으로 한 일방적인 사

3)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회화가 부모자녀 관계의 큰 부분을 이루었다면, 근래에는 보다 수평적이고 긍정적인 애착 관계(Kandel and Lesser, 1972)와 자녀의 자율성과 책임(Alwin, 1986, 1990)이 강화되고 있으며, 일방적이기보다는 상호적인 영향 속에서 사회화가 진행되는 경향이다(Barratt 1995; Cappella 1987).

롤린즈와 토마스(Rollins and Thomas, 1979), 스타인메츠(Steinmetz, 1979) 등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을 지지적 방식과 통제적 방식으로 분류한 바 있다. 지지적 방식에는 칭찬, 인정, 격려, 애정 표현, 도움주기, 협력 등의 행동이 포함되고, 통제적 방식에는 강요, 꾸짖음, 처벌, 혜택 및 애정의 철회 등이 포함된다. 노올러(Noller, 1995)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부모자녀 간 관계의 핵심은 지지/애착과 통제 사이의 밀고 당김이다. 통념상 청소년기는 부모에 대한 반항이 증가하고, 부모자녀 간 애착이나 지지적인 관계가 쇠퇴하는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애착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이 경험적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Kandel and Lesser, 1972; Youniss and Smollar, 1985; 이선이·김현주·이여봉, 2006).

지지와 통제는 부모 자녀관계의 질에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원만하고 안정적인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인간적인 존중감, 진실하고 공감적 태도를 보이면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것이 강조된다(Rogers, 1961; 김영애, 1990; 이금, 1993).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아버지/어머니의 정서적 지원변수가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 변수의 변량을 50 퍼센트 이상 설명하고 있다(문수경, 2005). 부모의 통제가 심한 경우,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상에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거나,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Vangelisti, 1992; 박보경, 2002). 뿐만 아니라 부모의 통제적 행동이 심할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상대적으로 또래관계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Fuligni and Eccles, 1993), 비행청소년 집단에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Hagan, 1991).

또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나 통제는 자녀에게 중요한 발달적 맥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arling and Steinberg, 1993; 이시형, 1997). 통제수준이 낮고, 지지와 애착의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기의 발달과 적응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이다. 부모의 인정, 격려, 애정표현 등의 지지적 태도나 행동은 자기통제력이나 자긍심, 의사소통 능력, 학교생활 적응 등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Eaton, 1997; Stafford and Bayer, 1993; 김문혜·강문희, 1999; 도현심·최미경, 1998; 백경숙·권용신, 2004). 또

청소년 자녀에게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등의 민주적 태도는 자녀의 자신감과 자긍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문혜·강문희, 1999; 도현심·최미경, 1998; Eaton, 1997; Grotevant and Cooper, 1986; Dornbush and Ritter, 1991; Rosenberg, 1985).

반대로 부모의 통제적 행동이나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심리적 행복감이나, 자긍심, 자아효능감, 학업 성취, 창의성 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Fitzpatrick and Caughlin, 2002; Glasgow, Dornbush, Troyer, Steinberg and Ritter, 1997; 이영숙·김정옥, 2002; 박영애, 1995; 장혜순·강태완, 2005). 부모가 통제적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상대적으로 또래관계에 몰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Fuligni and Eccles, 1993), 부모의 통제수준이 낮으면 비행청소년 집단에 관련될 가능성이 낮다(Hagan 1991). 또한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이 비행청소년 집단에 소속하거나, 비행이나 마약사용 등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Kandel and Andrews 1987; Marcos, Bahr, and Johnson 1986; Massey and Krohn, 1986).

한 가지 흥미로운 쟁점은 통제적 양육방식에 대한 개념이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엄격한 통제가 적대적이고 공격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로 인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부모의 엄격한 통제를 애정의 표현이나 관심의 증거로 지각할 뿐 아니라(Yang and Rettig, 2003), 자녀의 학업성취, 경제적 성취와 사회적 성취를 위해 필요한 자애로운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존재한다(박영신·김의철, 2004a). 실제로 한국에서는 부모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취동기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기도 한다(정갑순·박영신·김의철, 2002).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부모에 대한 신뢰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부모의 헌신과 희생에 있으며, 부모의 헌신에 대해 '죄송해 하는 마음'이 청소년의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탁수연·박영신, 2006).

## 2. 부모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성별에 따른 부모역할 기대 -좋은 어머니 역할(mothering)과 좋은 아버지 역할(fathering)에 대한 사회적 기대- 도 변화해 왔다. 부모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변화는 성역할 규범의 변화를 크게 반영한다. 과거에는 구조기능론의 주장처럼 아버지는 부양자 역할에 충실하고 어머니

는 양육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기대하였다면, 근래에는 어머니의 취업 증가에 따른 아버지의 부양자 역할에 대한 기대는 약화되고(Coltrane, 2004), 부양자로서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대로 자녀양육이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의 적극적 참여는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도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물론 후자의 변화는 부모에 대한 성별 역할기대가 변한 것 외에도, 사회화 방식이 훈육 중심의 방식으로부터 애착형성 중심의 방식으로 전환된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어머니 역할에 대한 지배적인 기대란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고 참을성 있게 자녀의 입장에 서는 것이었으나, 이것이 근래에 들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Walzer, 1998, 2004; Thompson and Walker, 1989; Hayes, 1996; Oakley, 1979). 과거에 어머니 역할은 조건 없이 지속되는 유일하고 특수한 책임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보상이 되며, 누구라도 아무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는 본능적인 속성이라고 인식되었다(Boulton, 1983). 그러나 모성이 본능이 아니라 사회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Bernard, 1974), 사회적으로 강요되는 모성이 지니는 '문제', 즉 제도로서의 모성(motherhood)과 경험으로서의 어머니 됨(mothering) 간의 갈등에 대한 논의들이(Rich, 1976) 활발하게 전개되었다(Walzer, 2004).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폭력이 증가하는 사례는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 특성이 본능적인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압력의 결과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종 인용되기도 한다(Arendell, 2000; Demo, 1992). 또 어머니의 애정적 특성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적 상황 - 예를 들어, 맞벌이가 아니라 남편 한 사람의 벌이만으로도 가족부양이 가능한 경제적인 호황기- 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어머니 역할에 대한 기존 개념이 이와 같이 도전을 받는 외중이지만, 어머니들에게 전통적인 역할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조하는 규범적 압력도 여전히 공존한다(Hayes, 1996).

최근에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아버지 역할과 관련하여 '좋은 부양자역할(good provider role)'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는 경향에 대한 논의가 있다(Coltrane, 2004). 근대산업사회 이전 아버지의 표상은 자녀에 대한 도덕적 스승이요, 애정 없는 엄격한 모습으로 존재하였으나(Coltrane, 2004), 근대 산업사회 이후에는 가족 밖에서 일하며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으로서의 아버지상이 강조되었다(Coltrane and Galt, 2000). 20세기 후반에 들어오면서 다시 이러한 아버지상에 변화가 생겨나서, TV나 잡지, 영화 등에는 아버지들이 애정적이고, 사려 깊으며, 감정도 풍부한 사람으로 그려지기 시작하였다(Furstenberg, 1988). 또한 1970년대 말부터 미국의 아버지들이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어머

니와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보고한 비교문화적 연구가 있었다(Mackey and Day, 1979).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부성상과 모성상의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추세에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이상적 아버지 역할에 대한 오늘날의 사회적 기대는 두 가지 갈등하는 유형이 공존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자녀에 대해 직접적이고 친근하게 관여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와의 직접적 접촉은 제한적이면서 경제적 지원에 치중하는 유형이다(Coltrane, 2004; Furstenberg, 1988). 새로이 부상하는 아버지상과 관련해서도 때로는 자녀와 함께 할 것에 대한 권고와 너무 많이 관여하는 것은 주의하라는 권고가 교차하기도 한다(Kimmel, 1996).

한편, 한국에서는 최근까지도 어머니의 양육방식은 희생과 자애로, 아버지의 양육방식은 엄격한 통제로 유형화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표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족관계를 조명한 박영신과 김의철(2004b)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이중적이다. 아버지의 경우엔 원래 '엄격함'이 우세하다가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겪던 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엄격함'과 '인자함'이라는 정반대의 두 표상이 대등한 정도로 공존하게 되었다. 또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서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초등학생들에게는 '엄격함'이 지배적인 표상이지만, 청소년기로 이행하면서 '엄격함'에 대한 지각이 약화되고 '인자함'이 우세해 지는 경향을 보인다. 어머니에 대한 이중적 표상은 '인자함'에 '간섭함'이 공존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자함'이 현저히 우세하고, IMF 위기와 같은 시대적 사건이나 자녀의 발달단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자녀 간 관계의 실태를 조사한 경험적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성별은 여전히 자녀와의 상호작용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아버지에게 비해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더 빈번하며, 집중적이고, 지속적이다. 모든 형태의 가족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와 더 많은 접촉을 갖는다(Nock and Kingston, 1988). 또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와 공감적인 관계 형성을 더 잘하며, 자녀에 대한 인식이 이상적이기 보다 현실적일 가능성이 높다(Youniss and Smollar, 1985).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역할이 어머니와의 맥락관계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Walter and Walter, 1980), 어머니들이 딸과 아버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Aquilino, 1994; Rossi and Rossi, 199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부모자녀 관계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중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에서도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확대된 자기로 생각하여 자녀의 삶에 더 밀

접히 개입하는 경향이 있으며(박영신·김의철, 2004a), 이러한 경향은 자녀가 유아기일 때보다 청소년일 때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난다(김의철·박영신·권용은, 2005).

### 3. 자녀의 성별에 따른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모의 성별뿐 아니라 자녀의 성별도 부모의 자녀 양육에의 참여정도나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Warner and Steel, 1999; 문수경, 2005; 이선이 외, 2006).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가치를 달리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딸이나 아들에게 부여되는 사회문화적 가치는 결과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비교문화적인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들은 가문을 잇고, 부모에 대한 경제적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선호되고, 반면에 딸은 심리적인 이유로 선호된다(Arnold et al., 1975). 부계적 전통이 강한 사회에서는 아들 선호도가 높았겠지만, 가계 계승의 의미가 희박해지고 자녀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더 중요한 가치로 부상함에 따라 점차 딸에 대한 선호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부모-자녀 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자녀의 성별이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아버지들은 아들이 있는 경우에 자녀 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향이 있다(Harris and Morgan, 1991; Morgan, Lye and Condran, 1988). 또한 아버지들은 아들과 뒹굴고 거친 장난을 하는 경향이 강하며, 딸보다 아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곤 한다(Parke, 1996; Pleck, 1997). 한편,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있어서 자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감소하고(Fagan, 1998; Hofferth, 2003) 아들과의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경향 역시 약화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Pleck and Masciadrelli, 2003). 한국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애정표현이나 정보교환에 있어서 딸이 아들보다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이선이 외, 2006). 그러나 아들이 딸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다는 상반된 연구결과도 공존한다(문수경, 2005).

자녀의 성별은 특정 양육행동의 효과를 매개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의 영향이 자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예컨대, 어머니의 과잉기대과 간섭이 남자 청소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윤지은·최미경, 2004).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부모 성별의 영향과 자녀 성별의 영향을 따로 고려하지

만, 일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 성별과 자녀 성별은 그 조합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이성의 부모자녀관계보다 동성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동일시 경향이 많고, 활동이나 관심을 공유하는 경향 역시 높다(Aquilino, 1994; Lamb, 1981; Lee, Dwyer and Coward, 1993). 특히 모녀관계는 다른 어떤 부모자녀관계의 조합보다 가까운 사이임이 보고된 바 있다 (Kaufman and Uhlenberg, 1998).

유니스와 스몰러(Youniss and Smollar, 1985)에 의하면, 부모 및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개입하는 자녀의 생활 영역이 다르며, 또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기대하는 바도 다르다. 딸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좋아하는 것은 외출을 함께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 대칭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딸의 생활에 관여하는 영역은 학업이나 진로 계획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으며, 규칙을 세운다거나 규칙준수를 요구하거나 조언이나 실용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로 권위적이고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딸과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어머니가 관여하는 영역은 가정 내에서의 행동방식, 감정상태, 대인관계 등 보다 광범위하다. 딸들은 개인적인 사정을 털어놓고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아버지에 비해 훨씬 협력적이고 대칭적인 방식으로 딸과 상호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주로 여가 또는 직업과 관련되거나 수단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딸에 비해 아들들은 아버지와 관심사를 공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커진다. 그러나 속마음을 털어놓고 하는 대화는 아들의 경우도 어머니와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처럼 생각과 감정의 교류가 더 많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수평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 연구결과는 부모 성별과 자녀 성별 각각의 독립적인 효과에 따른 차이보다 그 조합에 따른 차이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초도로우(Chodorow, 1992)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성별 조합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역설한 바 있다. 딸들은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애정적 욕구를 억압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동일시가 강하게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아버지와와의 관계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러나 아들의 경우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의 여부가 부모자녀 간 관계 형성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경우 아들은 아버지와 친밀한 동일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성성에 대한 동일시 대상의 결여로 인해 여성성의 비하와 비난을 근거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제약을 받게 된다(Hewlett, 2000).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부모자녀관계 변화는 종전에 아버지들이 권위적인 입장에서 자녀를 대하던 방식에서, 점차 애착을 바탕으로 어머니들이 자녀를 대하는 방식 쪽으로 근접해 가고 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작용하던 방식보다는 어머니와 딸이 상호작용하던 방식이 부모의 성별이나 자녀의 성별을 막론하고 현재의 부모자녀 관계가 변해가는 방향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긴밀하게 관여하고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고, 또 아들과 아버지보다는 딸과 어머니 사이에서 긴밀하고 빈번하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향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상기 연구들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유형이 지지적 관계 형성을 유리하게 하고, 통제적 관계의 발생을 억제하는 유형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여타 4개국과의 비교에서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가 처한 상대적 위치 및 여타 국가들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조망하고자 한다.

**가설 1:**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즉,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에 대해 더 지지적이고 덜 통제적일 것이다.

**가설 2:**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즉, 부모는 아들보다 딸에게 더 지지적이고 덜 통제적일 것이다.

**가설 3:**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성조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지지적인 특성이 모녀관계에서 더욱 강화되고 통제적인 특성은 부자관계에서 강화될 것이다.

### Ⅲ. 방법

#### 1. 연구 자료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청소년개발원이 2006년에 5개국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참조). 이 자료는 동일한 설문문항을 각국의 언어로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된 것이며, 국가별로 수집된 표본의 크기도 충분하기 때문에, 동일한 변수 및 변수들 간 관계에 대한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몇 가지 제한점으로 인해, 분석에 주의가 요구되는 면이 있다. 이 조사에서 한국 자료는 전국단위 표본조사를 통해 수집된 반면, 일본은 동경에서, 독일은 베를린에서, 그리고 스웨덴은 스톡홀름과 기타 대도시를 기반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또, 미국의 경우에는 여타 국가와 달리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에 의거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표본 추출의 범주 및 방법 그리고 설문 조사 방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동일한 질문지에 기초하여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예가 희소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원 자료는 한국 표본 3,747 사례, 미국 표본 1,875 사례, 일본 표본 489 사례, 독일 표본 497 사례, 그리고 스웨덴 표본 514 사례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례들을 다음의 세 기준에 비추어 선별하였으며, 나머지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첫째,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조사 당시 양친 모두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 사례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 외의 가족형태 속에서 사는 사례들은 제외하였다.

둘째, 계부나 계모, 양부나 양모의 경우 친부나 친모와는 부모자녀 관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고려하여, 친부, 친모와 거주하는 사례만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물론 그 외의 부모자녀 관계를 다루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주제이기는 하나, 주어진 자료에는 친부·친모가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sup>4)</sup> 다른 가족 형태를 이루는 표본이 동급의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너무 적으므로, 친부·친모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셋째, 청소년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다를 것이므로, 국가별 비교를 위해서 동일한 연령대의 청소년 범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2006년을 기준 시점으로 한국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1988년생부터 1993년생까지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세 조건에 부합하는 한국의 3,296 사례, 미국의 1,138 사례, 일본의 428

4) 한국과 일본의 경우 친부친모 사례가 전체 표본의 88%를 차지하며, 스웨덴은 71%이다. 독일의 경우 친부친모 사례가 77%이고, 양부친모 사례가 7%를 차지한다. 친부친모 사례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경우는 미국의 64%로, 13%가 양부친모 사례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의 가족형태는 어느 국가의 표본을 막론하고 1-2%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상기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부모조합을 고려하기에는 각 형태별 사례가 충분치 않다.

&lt;표 1&gt; 국가별 응답자의 연령 분포

|             |      | 한국    | 일본    | 미국    | 독일    | 스웨덴   |
|-------------|------|-------|-------|-------|-------|-------|
| 연령<br>(yr.) | 평균   | 15.34 | 16.64 | 15.71 | 15.68 | 17.29 |
|             | 표준편차 | 1.19  | 0.88  | 1.33  | 1.31  | 0.71  |

연령은 조사년도인 2006년에서 출생년도를 감하여 계산함.

사례, 독일의 343 사례, 그리고 스웨덴의 273 사례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다.

청소년 자녀의 연령대를 이와 같이 일정하게 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과 일본은 그 외의 3국에 비해 응답자녀의 평균 출생연도가 이른 편이고 표준편차 역시 적어서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청소년들에 편중되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음이 관찰된다(표 1 참조).

##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주된 목표는 한국 부모와 청소년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지지와 통제가 부모 및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가설을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등 다른 국가 자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검증 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한국과 4개 외국 사례 간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부모와 청소년자녀 관계의 실태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문화적 차이나 사회구조적 변동에 따라 부모 및 자녀 성별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또는 달라지지 않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으려는 것이다.

국가는 가족관계의 중요한 맥락으로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유 문화적·규범적 전통이 작용할 수 있고<sup>5)</sup>, 또 사회경제 제도상의 차이 -예컨대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자녀양육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sup>6)</sup>-

5)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의 맥락으로 작용하는 문화의 내용으로 서구와 동양 간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많이 있다. 동양의 문화가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면 서구문화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본다. 개인주의적 전통은 개인을 정서적으로 독립적이라고 본다(Hofstede, 1980). 이에 비해 집단주의적인 동양의 문화는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Yum, 1988), 인간관계에서 규범과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다(Triandis, 1995). 동양의 유교문화권에서는 특히 가족주의를 강조하며(Cha, 1983), 가족관계에서 부모의 권위와 효도를 강조한다(Hurh, 1998). 자녀에게는 부모에 대한 복종과 존경이 요구된다(Rosenthal and Feldman, 1990).

6) 2002년 이후 자료에 의하면 스웨덴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75% 이상이고, 미국은 약 60%이지만, 한국, 일본, 독일의 경우는 50% 내외를 기록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2004, 2007). 또 스웨덴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분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의 큰 부분을 아동수당, 학업수

도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적 또는 사회제도적 요인이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관계에 어떻게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청소년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본 논문의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여성 및 어머니 역할의 변화와 남성 및 아버지 역할의 변화가 세계적으로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우리 사회 부모자녀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변화 전망에 따른 함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원 자료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 각각에 대해 동일한 문항에 대한 응답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부모의 성별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종속변인(부모와의 지지적 관계 및 통제적 관계)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자료의 조작이 이루어졌다. 즉 아버지의 태도와 어머니의 태도가 반복하여 측정된 점에 착안하여, 이들을 별도의 두 자료집단인 듯 간주하고 다시금 이 둘을 병렬적으로 통합하여 활용하였다. 이는 하나의 실험 사례에 대하여 여러 번 처치한 결과를 비교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반복측정기법(repeated measures design)에 착안한 조작이다.<sup>7)</sup>

본 연구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지지적 차원과 통제적 차원은 부모의 훈육방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주관적 지각과 응답을 근거로 측정하였다. 즉,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훈육 방법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에 이르는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문항들에 기초하였으며, 내용적 특성을 기준으로 지지적 훈육방식에 해당하는 문항과 통제적 훈육방식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선택하여 각각 지지적 관계척도와 통제적 관계척도로 구성하였다. 지지적 관계척도는 10개의 문항을, 통제적 관계 척도는 7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가법척도화(additive scale)하여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은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제적 관계척도는 대체로 강압 및 처벌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제적 양육행동의 다른 요소들, 예컨대 꾸짖음이나 애정의 철회에 해당하는 문항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Peterson and Rollins, 1987 참조).<sup>8)</sup> 이는 2차 자료를 사용하는 연구에서는 자

당, 주책보조금 등의 형태로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7)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작이 이루어지는 경우, 통계처리 과정에서 사례수가 배가(倍加)되고 변수들의 반복됨에 따라 다중공선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에는 부모의 성과 자녀의 성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변수만을 활용하므로 반복되는 변수는 자녀의 성 뿐이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나, 자유도의 변동에 따른 검증결과의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8) 피터슨과 롤린스 (Peterson and Rollins, 1987)에 의하면 부모의 통제적 행동은 강압, 애정의 철회, 유도(induction) 등으로 구성된다. 강압적 행동에는 다시 처벌, 물리적 강압, 물건이나 혜택의 철

<표 2-1> 부모자녀 관계 측정척도의 구성 항목

| 관계척도를 구성하는 항목          |                                  |
|------------------------|----------------------------------|
| 지지적 관계                 |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
|                        |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
|                        | 나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
|                        | 나와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
|                        | 나와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
|                        | 나의 걱정이나 고민을 들어준다.                |
|                        |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
|                        | 내가 외출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
|                        | 나의 능력과 노력을 높게 평가해 준다.            |
|                        | 나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해 준다.               |
| 통제적 관계                 | 나에게 심한 욕설을 자주 하신다.               |
|                        | 나를 심하게 때릴 때가 많다.                 |
|                        | 내가 잘못했을 때 체벌을 가한다.               |
|                        | 내게 이유 없이 화풀이를 한다.                |
|                        | 내게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한다.             |
|                        | 나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
| 나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강요한다. |                                  |

료가 제공하는 한도 내에서 척도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찾을 수밖에 없음에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강압과 처벌의 내용을 중심으로 통제적 관계를 측정하였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다섯 국가별로 각기 모녀관계, 모자관계, 부녀관계, 부자관계로 나누어 척도의 신뢰도를 평가해 보면, 크론바크 (Chronbach's)  $\alpha$ 값의 범위가 .70부터 .94 사이로 예외 없이 높다(표 2-2 참조).

<표 2-2> 부모자녀관계 측정척도의 국가별 성조합별 신뢰도(Chronbach's  $\alpha$ )

|     | 지지적 관계 척도 |     |     |     | 통제적 관계 척도 |     |     |     |
|-----|-----------|-----|-----|-----|-----------|-----|-----|-----|
|     | 모녀        | 모자  | 부녀  | 부자  | 모녀        | 모자  | 부녀  | 부자  |
| 한국  | .88       | .85 | .89 | .87 | .78       | .79 | .80 | .80 |
| 일본  | .87       | .85 | .89 | .89 | .79       | .70 | .82 | .80 |
| 미국  | .92       | .92 | .94 | .94 | .88       | .88 | .88 | .89 |
| 독일  | .80       | .84 | .86 | .85 | .83       | .78 | .73 | .82 |
| 스웨덴 | .90       | .90 | .93 | .90 | .80       | .74 | .73 | .71 |

회, 이것들의 위협 등이 포함된다.

<표 3> 지지적 관계와 통제적 관계 간 상관관계 및 공변량에 관한 동질성 검증

|                    |         | 한국      | 일본      | 미국      | 독일      | 스웨덴     |
|--------------------|---------|---------|---------|---------|---------|---------|
| 상관관계 (Pearson's R) |         | -.252** | -.214** | -.361** | -.316** | -.377** |
| 동질성 검증             | Box's M | 45.79   | 41.60   | 228.87  | 41.01   | 27.05   |
| (Box's test)       | F       | 5.09**  | 4.60**  | 25.39** | 4.53**  | 2.99**  |

\*\* p<.01

부모 성별과 자녀 성별 그리고 이들 간의 조합에 따라 부모자녀 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지지적 관계 척도와 통제적 관계 척도를 각각 별도의 종속변인으로 하고,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 그리고 이들 간의 교호작용 효과를 분석한다. 즉 5개 국가 각각에서 4개로 분류되는 관계의 유형 -모녀, 모자, 부녀, 부자- 으로 구분되었으므로, 총 20 범주로 구분되는데, 이들 각각에 관해 지지적 관계 차원과 통제적 관계 차원이라는 2개의 종속변인에 관한 분석이 시도되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국가별 차이가 상위 범주로 구분되어 개별 문화권에서 부모자녀 관계의 유형별 차이에 주목할 수도 있고(표 4, 표 5, 표 6), 반대로 부모자녀 관계의 유형별 차이가 상위범주로 구분되어 각 관계 유형 안에서의 국가 간 차이에 주목할 수도 있다(표 7).

본 연구의 가설에서는 두 개의 종속변수-지지적 관계와 통제적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지만, 이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데다, 공분산행렬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표 3 참조). 따라서 다변량분석(MANOVA)를 시도하지 않고 종속변수의 두 차원 각각에 관해 이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고(표 5), 이를 기초로 사후검증(Turkey's HSD)하여 표로 제시하였다(표 6, 표 7).

#### IV. 결과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을 기준으로 4가지 성별조합-모녀관계, 모자관계, 부녀관계, 부자관계-으로 구분하여, 지지적 관계 척도와 통제적 관계 척도의 평균값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우선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통제적이기 보다는 지지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지지적 관계 척도의 평균값 범위는 2.57~3.62로서, 통제적 관계 척도의 평균값 범위인 1.32~1.62에 비해 현저히 높다. 또한 지지적 관계 척도의 평균값 변이

&lt;표 4&gt; 부모 및 자녀 성별 지지적 관계 척도와 통제적 관계 척도의 평균값

| 국가      | 자녀<br>성별 | 지지적 관계 |      | 통제적 관계 |      | N     |
|---------|----------|--------|------|--------|------|-------|
|         |          | 어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아버지  |       |
| 한국      | 아들       | 2.90   | 2.68 | 1.55   | 1.62 | 1,537 |
|         | 딸        | 3.09   | 2.69 | 1.53   | 1.51 | 1,759 |
| 일본      | 아들       | 2.97   | 2.57 | 1.33   | 1.38 | 199   |
|         | 딸        | 3.24   | 2.69 | 1.42   | 1.39 | 229   |
| 미국      | 아들       | 3.58   | 3.23 | 1.49   | 1.62 | 558   |
|         | 딸        | 3.62   | 3.18 | 1.46   | 1.52 | 633   |
| 독일      | 아들       | 3.25   | 3.09 | 1.37   | 1.40 | 210   |
|         | 딸        | 3.48   | 3.13 | 1.40   | 1.35 | 167   |
| 스웨덴     | 아들       | 3.07   | 2.87 | 1.34   | 1.34 | 151   |
|         | 딸        | 3.11   | 2.87 | 1.36   | 1.32 | 210   |
| 국가 간 평균 | 아들       | 3.15   | 2.89 | 1.42   | 1.47 | 2,655 |
|         | 딸        | 3.31   | 2.91 | 1.43   | 1.42 | 2,998 |

주: 국가 간 평균은 국가별 평균치를 합하여 다시 평균한 값임.

가 상대적으로 크며, 반면에 통제적 관계 척도의 경우 변이가 작다. 즉, 지지적 차원에서는 모든 국가에서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딸과 부모의 관계가 아들과의 관계보다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제적 차원에서는 그러한 성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 1. 부모 성별과 자녀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의 차이 검증 결과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 그리고 이들 간의 교호작용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에 차이가 있는지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변량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첫째, 부모 성별이 지지적 관계 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에서도 그 효과가 높은 수준에서 유의하다( $p < .001$ ). 즉, 국가를 불문하고 자녀에 대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지지적이다. 반면에, 통제적 관계 차원에서는 부모 성별의 효과가 미국과 한국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설대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통제적이다( $p < .001$ ). 따라서 <가설 1>에서 예측했던 부모 성별의 효과는 지지 차원에서는 모든 비교국가에서 공통적

<표 5> 부모성별과 자녀성별의 효과 검증 (ANOVA)

| 종속변수        |         | 지지적 관계      |    |          |        |      | 통제적 관계      |    |          |       |      |
|-------------|---------|-------------|----|----------|--------|------|-------------|----|----------|-------|------|
| 국가          | 소스      | 제3유형<br>제공합 | df | 평균<br>제공 | F      | sig. | 제3유형<br>제공합 | df | 평균<br>제공 | F     | sig. |
| 한<br>국      | 부모성     | 158.01**    | 1  | 158.11   | 502.59 | .000 | .23         | 1  | .23      | .93   | .336 |
|             | 자녀성     | 16.66**     | 1  | 16.66    | 52.99  | .000 | 6.86**      | 1  | 6.86     | 27.41 | .000 |
|             | 부모성*자녀성 | 12.01**     | 1  | 12.01    | 38.21  | .000 | 3.34**      | 1  | 3.34     | 13.34 | .000 |
|             |         | R 제곱 = .087 |    |          |        |      | R 제곱 = .006 |    |          |       |      |
| 일<br>본      | 부모성     | 46.69**     | 1  | 46.69    | 142.28 | .000 | .32         | 1  | .32      | 1.43  | .233 |
|             | 자녀성     | 7.88**      | 1  | 7.88     | 24.02  | .000 | .25         | 1  | .25      | 1.13  | .288 |
|             | 부모성*자녀성 | 1.13+       | 1  | 1.13     | 3.44   | .064 | .15         | 1  | .15      | .66   | .418 |
|             |         | R 제곱 = .174 |    |          |        |      | R 제곱 = .004 |    |          |       |      |
| 미<br>국      | 부모성     | 89.53**     | 1  | 89.53    | 261.77 | .000 | 4.53**      | 1  | 4.53     | 12.82 | .000 |
|             | 자녀성     | .05         | 1  | .05      | .15    | .703 | 2.01*       | 1  | 2.01     | 5.68  | .017 |
|             | 부모성*자녀성 | 1.35*       | 1  | 1.35     | 3.94   | .047 | 1.16+       | 1  | 1.16     | 3.29  | .070 |
|             |         | R 제곱 = .102 |    |          |        |      | R 제곱 = .009 |    |          |       |      |
| 독<br>일      | 부모성     | 11.18**     | 1  | 11.18    | 39.81  | .000 | .46         | 1  | .46      | 1.91  | .167 |
|             | 자녀성     | 2.49**      | 1  | 2.49     | 8.88   | .003 | .09         | 1  | .09      | .36   | .551 |
|             | 부모성*자녀성 | 1.06+       | 1  | 1.06     | 3.77   | .053 | .26         | 1  | .26      | 1.10  | .294 |
|             |         | R 제곱 = .068 |    |          |        |      | R 제곱 = .004 |    |          |       |      |
| 스<br>웨<br>덴 | 부모성     | 7.92**      | 1  | 7.92     | 23.98  | .000 | .05         | 1  | .05      | .33   | .565 |
|             | 자녀성     | .03         | 1  | .03      | .08    | .780 | .01         | 1  | .01      | .03   | .854 |
|             | 부모성*자녀성 | .06         | 1  | .06      | .19    | .660 | .07         | 1  | .07      | .44   | .507 |
|             |         | R 제곱 = .037 |    |          |        |      | R 제곱 = .001 |    |          |       |      |

주: + p<.1, \* p<.05, \*\* p<.01

으로 나타나지만, 통제차원에서의 효과는 미국의 경우에만 확인되었다.

두 번째, 자녀 성별이 지지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과 일본, 독일에서 예측대로 나타난다(p<.001). 즉 한국, 일본, 독일에서는 딸이 아들보다 지지적 관계의 평균값이 높다. 통제적 관계에 대한 자녀 성별의 효과는 한국(p<.001)과 미국(p<.05)에만 있다. 이 경우 예측한 대로 딸보다 아들에 대해서 통제적 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비교국 중에서 자녀 성별 효과가 한국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국가는 없고, 부분적으로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지지차원에 대한 자녀 성별의 효과는 일본과 독일에서, 통제차원에 대한 효과는 미국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자녀 성별의 효과가 전혀 없다.

세 번째로 부모 성별과 자녀 성별의 교호작용은 지지적 관계의 경우는 한국

과 미국에서만 효과가 비교적 뚜렷하고( $p < .05$ ), 일본과 독일에서는 유의도가 아주 약한 수준( $p < .1$ )에서 미미하게 나타나는 정도이다(표 5). 한국, 일본, 독일에서는 예측대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지지적이고, 또 아버지/어머니를 막론하고 아들보다 딸에게 더 지지적인데 특히 모녀관계에서의 지지적인 정도가 가장 크게 눈에 띈다. 미국 역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녀들에게 더 지지적이고 특히 아들보다 딸에게 더욱 그러한 것은, 한국, 일본, 독일의 패턴과 비슷하다. 그런데 미국의 아버지들은 전반적으로는 어머니보다 덜 지지적이기는 하지만,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지지적이라는 것이다(표 6). 앞서 <가설2>의 검증 과정에서 미국에서 자녀 성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버지들이 딸보다는 아들의 양육에 상대적으로 깊이 관여하고, 딸보다 아들과의 상호작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Lamb, 1981). 그러한 성차가 최근에 약화되고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Fagan, 1998; Hofferth, 2003; Pleck and Masciadelli, 2003), 상기 결과로 미루어 이와 같은 경향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통제적 관계의 경우 부모 성별과 자녀 성별의 교호작용은 한국에서만 확실히 유의한 효과가 나타난다( $p < .001$ ). 교호작용의 방향은 예측한대로 부자간에 통제적 관계가 강하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여타 3국과 달리 미미하게나마 통제적 관계에 있어 부모 성별과 자녀 성별의 교호작용이 유의하지만( $p < .1$ ), 그 방향성은 한국의 경우와는 다르다. 미국에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딸보다 아들에게 통제적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고 있다. 미국의 아버지들은 지지적 차원과 통제적 차원 모두에서 딸보다는 아들에게 긴밀하게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여타 국가들과 구별된다.

3개 가설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에서는 모든 가설이 지지되었다. 즉, 지지 차원과 통제 차원 모두에서 부모 성별 효과와 자녀 성별 효과, 그리고 교호작용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에서 관찰되는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국가는 없다. 그나마 지지적 관계 차원에서는 스웨덴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 비교적 한국의 패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통제적 관계 차원에서 한국은 유일하게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차이가 뚜렷한 국가이다.

## 2. 부모 자녀 관계 조합별 차이

상기 변량분석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관찰하고자 사후검증을 시도하였다. 각 국가별로 구분해서 볼 때 부모자녀 관계의 성조합별 관계척도의 평균차이에 관한 검증 결과를 <표 6>에,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의 성조합별로 구분해서 볼 때 국가간 차이에 관한 검증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sup>9)</sup>.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섯 국가 모두에서 예외 없이 모녀관계가 가장 지지적이다. 다만 한국과 일본 및 독일의 경우에는 모녀관계가 독보적으로 지지적인 데 반해, 미국과 스웨덴은 모녀관계와 모자관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

<표 6> 종속변수에 대한 부모·자녀 성별 조합 간 평균 차이 검증(Turkey's HSD)

| 국가          | 지지적 관계                                   | 통제적 관계                                   |
|-------------|--|--|
| 한국<br>(평균)  | 모녀 3.09<br>모자 2.90<br>부녀 2.69<br>부자 2.68 | 부자 1.62<br>모자 1.56<br>모녀 1.54<br>부녀 1.51 |
| 미국<br>(평균)  | 모녀 3.62<br>모자 3.58<br>부자 3.24<br>부녀 3.18 | 부자 1.62<br>부녀 1.52<br>모자 1.49<br>모녀 1.48 |
| 일본<br>(평균)  | 모녀 3.24<br>모자 2.97<br>부녀 2.69<br>부자 2.57 | 모녀 1.46<br>모자 1.39<br>부녀 1.39<br>부자 1.38 |
| 독일<br>(평균)  | 모녀 3.48<br>모자 3.28<br>부녀 3.15<br>부자 3.10 | 모녀 1.46<br>모자 1.40<br>부자 1.39<br>부녀 1.37 |
| 스웨덴<br>(평균) | 모녀 3.11<br>모자 3.07<br>부자 2.87<br>부녀 2.87 | 모녀 1.36<br>부자 1.34<br>모자 1.34<br>부녀 1.32 |

주: \* 제3유형 제공함에 기초하였음.

\*\* 위의 실선으로 분리된 유형 간에는  $p < .05$ 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한 반면, 분리되지 않은 채 하나의 집단군에 포함된 관계 유형들의 경우 평균차이가 유의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두 범주에 공통적으로 속한 유형의 경우는, 양 범주 어디와도 평균 차이가 유의하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지지적 관계에서 독일의 부녀관계처럼 양 범주에 동시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자관계나 부자관계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9) 본 분석은 국가별로 표본 크기의 차이가 크다는 점과 평균 차이의 유의미성을 가시화하는 데 있어서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Turkey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 존재하지 않는다(표 6). 또한 특이한 점은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 자녀들에 대한 지지적 관계가 약한 편인데, 이러한 특성이 딸이건 아들이건 별 차이 없이 5개국 모두에서 공통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부모와 자녀가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부모 성별이 자녀 성별에 우선하여 작용하고 있으며, 그 차이가 여러 국가들에서 비교적 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 간 지지적 관계에 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 및 독일의 경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딸이 아들보다 더 지지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 성별 뿐 아니라 자녀 성별에 있어서 역시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유리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하지만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는 이에 관한 어떤 해석도 의미를 찾기 힘들고, 따라서 딸과 아들 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다.

통제적 관계 형성과 관련해서 볼 때, 일본과 독일 및 스웨덴은 부모 성별과 자녀 성별 중 어떤 것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4, 표 6). 그래서 이들 나라의 경우 부모나 자녀의 성별과 부모자녀관계에서의 통제성 간에 의미 있는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경우, 부자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통제적이다(표 6). 그런데 미국은 부자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세 관계-모녀, 모자, 부녀-가 통제적 차원에 있어 별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한국은 통제성의 강도에 있어 부자관계와 부녀관계가 양 극단에 위치함으로써 부녀관계에서의 통제성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경우 통제적 관계형성과 관련해서는 부모의 성별이 꼭 자녀의 성별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보다는 한국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강한 기대와 더불어 처벌과 강요를 통한 통제를 행하는 반면, 딸에게는 매우 관용적인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3. 국가 간 부모자녀 관계 차이

미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가장 지지적인 동시에 가장 통제적인 군으로 분류되는 반면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는 통제성이 가장 높은 반면에 지지적 관계 정도는 가장 낮게 분류된다(표 7). 이러한 경향은 지지적 관계와 통제적 관계 차원을 막론하고 그리고 자녀의 성별과 부모의 성별을 막론하고 일관적이다. 독일은 모녀 및 모자 사이는 지지적 관계 차원과 통제적 관계 차원 모두에서 중간 정도에 머무는 반면, 부녀 및 부자 사이는 지지적 관계 정도가 높고 통제적 관

계 정도가 낮은 군에 분류된다.

반면 일본과 스웨덴은 지지적 관계 및 통제적 관계에 있어 중간 혹은 낮은 군에 분류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표 7>에 나타난 일본과 스웨덴의 결과에 대해 이들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청소년과 부모 간의 상호작용이 적고 친밀도가 낮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으로는 일본과 스웨덴 응답자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쪽에 몰려있음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이다.

4개의 비교국 중 일본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장 인접하고 문화적 동질성이

<표 7> 증속변수에 대한 국가 간 평균 차이 검증(Turkey's HSD)

| 국가            | 지지적 관계   | 통제적 관계   |
|---------------|----------|----------|
| 모녀 관계<br>(평균) | 미국 3.62  | 한국 1.54  |
|               | 독일 3.48  | 미국 1.48  |
|               | 일본 3.24  | 독일 1.46  |
|               | 스웨덴 3.11 | 일본 1.46  |
|               | 한국 3.09  | 독일 1.46  |
|               |          | 스웨덴 1.36 |
| 모자 관계<br>(평균) | 미국 3.58  | 한국 1.56  |
|               | 독일 3.28  | 미국 1.49  |
|               | 스웨덴 3.07 | 독일 1.40  |
|               | 일본 2.97  | 독일 1.40  |
|               | 일본 2.97  | 일본 1.39  |
|               | 한국 2.90  | 스웨덴 1.34 |
| 부녀 관계<br>(평균) | 미국 3.18  | 미국 1.52  |
|               | 독일 3.15  | 한국 1.51  |
|               | 스웨덴 2.87 | 일본 1.39  |
|               | 일본 2.69  | 일본 1.39  |
|               | 한국 2.69  | 독일 1.37  |
|               |          | 스웨덴 1.32 |
| 부자 관계<br>(평균) | 미국 3.24  | 미국 1.62  |
|               | 독일 3.10  | 한국 1.62  |
|               | 스웨덴 2.87 | 독일 1.39  |
|               | 한국 2.68  | 일본 1.38  |
|               | 일본 2.57  | 스웨덴 1.34 |

주: \* 제3유형 제곱항에 기초하였음.

\*\* 위의 국가군 분류는 국가간 평균에 대한 차이 검증 수준  $p < .05$ 에서 유의함. 위의 실선으로 분리된 국가 간에는  $p < .05$ 에서 평균 차이가 유의한 반면, 분리되지 않은 채 하나의 집단군에 포함된 국가들의 경우 평균차이가 유의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두 범주에 공통적으로 속한 국가의 경우는, 양 범주 어디와도 평균 차이가 유의하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지지적 관계에서 일본의 모자관계처럼 양 범주에 동시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스웨덴이나 한국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높아서 부모자녀 관계가 한국과 유사할 것이라는 추측을 해 볼 만 하지만, 현실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섯 국가 모두 각각의 양상들이 혼재하는 속에서, 한국의 결과는 오히려 미국과 더 많은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에 따라 지지적 관계와 통제적 관계가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한국이다. 한국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지지적 관계 정도는 중간 혹은 다소 낮은 반면에 통제적 관계 정도는 높다. 또한 이는 다섯 나라 중 한국부모들이 가장 권위주의적(authoritarian)인 방식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 V. 논의

상기 연구 결과를 통해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들을 발견하게 된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발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할 때,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질적으로 높고, 아들보다 딸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물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별 차이가 다소간 있기는 하지만, 다음의 진술은 본 연구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긍정적 애착관계와 자녀의 발달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자녀관계의 모형을 찾는다면, 일단 모녀 관계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성별로 인한 차이가 자녀의 성별로 인한 차이보다 더 강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표 4). 이를 다시 표현하면, 부모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보다, 자신이 실천하는 자녀양육방식이 젠더화(gendered)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행동이 구별되는 경향이 더 뚜렷하다는 점이다. 특히 성별 분업체제가 가장 앞서 해소되고 있는 국가로 인정되는 스웨덴에서 자녀 성별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녀의 가치나 존재 의미가 성별에 따라 구별되는 현상은 보다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다만 이미 습득한 젠더화된 행동방식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변화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세 번째, 한국의 청소년 자녀와 부모관계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대체로 지지적 관계 척도의 평균치는 낮고, 통제적 관계 척도의 평균치는 높다. 각 국가별로 4가지 관계별 평균값의 평균을 계산하면,

지지적 관계 차원의 경우 미국 3.41, 독일 3.24, 스웨덴 2.98, 일본 2.87, 한국 2.84의 순서로 한국이 가장 낮다. 통제적 관계 차원의 경우는 한국 1.55, 미국 1.52, 독일과 일본 1.38, 스웨덴 1.34의 순서로 한국이 가장 높다. 이는 한국의 부모들은 다른 어느 국가의 부모들보다도 청소년 자녀에 대해 덜 지지적인 반면에 가장 처벌적 통제를 많이 사용함을 뜻한다. 미국도 한국만큼 통제적 관계의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지지적 관계의 수준이 5개국 중 가장 높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는 통제적 양육방식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과는 다르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일방적 복종과 수직적 '효'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청소년 세대가 급격히 평등주의 및 개인주의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부모의 양육방식 비중이 지나치게 처벌적 통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해 봐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sup>10)</sup>.

네 번째, 부모자녀 관계와의 연관성에서 부모 및 자녀의 성별과 관련된 전망이다. 앞서 국가별 논의에서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성차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 점, 특히 스웨덴의 경우 성별 영향이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성별분업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sup>11)</sup>. 근래에 일부 서구 국가에서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가족관계에서 성별에 기반한 전통적인 역할 규범이 점차 사라지면서 부모의 성별이나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Deković et al., 1997; Deković, 1999). 이러한 경향은 부모의 맞벌이가 보편화 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양육에 개입하는 정도의 차이가 감

10) 참고로, 현 표본에서 자녀들 자긍심의 국가별 평균을 높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미국(3.53), 독일(3.15), 스웨덴(3.07), 한국(2.78), 일본(2.51) 순이며, 모든 국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 $p < .05$ ). 자긍심 개념은 자신의 성품, 능력, 가치감, 자신의 결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 해결능력에 관한 평가, 삶을 주관하는 정도 등 6개 문항(4점 척도)에 대한 응답의 평균으로 측정된 것이다. 이는 청소년기 발달의 중요한 차원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의거하여 5개국 중 부모의 지지적 태도가 높은 미국의 자녀들이 자긍심이 가장 높고, 지지적 태도가 낮은 한국과 일본이 하위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음미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자긍심은 부모의 양육방식만이 아니라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만, 기존 연구결과들에 의거하여 지지적 양육방식의 긍정적 효과를 주장하는 바이다.

11) 부모의 역할담당과 관련된 변수로 현 표본에서 부모의 가사분담과 소득기여분에 관한 응답결과를 국가별로 살펴본 결과, 스웨덴이 가장 양성평등적인 역할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부모의 가사분담 상황의 경우, 스웨덴 부모(2.29)가 "반반씩 한다(3점)"에 가장 가깝고, 일본 부모(1.54)가 "어머니가 전부 한다(1점)"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2.05), 독일(2.04), 한국(1.97) 3국은 그 중간으로 상호 유의한 차이는 없다. 부모의 소득기여분을 살펴보면, 스웨덴 부모(3.44)가 "반반씩 번다(3점)"에 가장 가깝고, 다음은 미국(3.82)과 독일(3.88), 그 다음 단계로 차이가 유의한 국가는 한국(4.07)이고, "아버지가 전부 번다(5점)"에 가까운 국가는 일본(4.22)인 것으로 나타난다.

소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Almeida and Galambos, 1991; Galambos and Almeida, 199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도 점차로 다른 국가처럼 부모자녀 간 관계에서 지지와 통제 차원에서의 성차가 점차 감소하리라는 전망을 세워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아버지건 아들이건 남성이 포함된 가족관계에서 지지적 관계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남성들이 친밀한 관계맺음에 취약하도록 사회화된 데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더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어머니-딸 간 평균적 관계를 부모자녀 관계의 긍정적 모델로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이 지닌 설명력( $R^2$ )이 미미하게 나타난 결과(표 5)는 성별 외에도 부모자녀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중요한 변인들이 많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가 간 비교연구의 의의를 더욱 살리려면 부모의 양육행동에서 성별 효과가 왜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역시 주요 설명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 후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성별 외에도, 예컨대 부모의 학력, 직업, 소득 수준, 성별분업 정도,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문화적 기대 및 자녀 가치관, 양육이나 교육과 관련된 국가 제도의 차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별로 그러한 요인에 평균적인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더욱 흥미로운 것은 국가마다 어떤 요인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가 다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sup>12)</sup>. 그러나 국가 간 차이와 관련된 설명요인의 분석이나 국

12) 단순상관관계 분석만으로도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인과관계 모형의 다양성을 짐작할 수 있다. 학력의 예를 들면, 한국, 미국 일본에서 아버지의 학력은 아버지 뿐 아니라 어머니의 지지적 행동과도 정적 상관을 보이는 반면, 독일이나 스웨덴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별 상관성이 없다. 독일과 일본은 아버지 학력이 지지적 행동 뿐 아니라 통제적 행동과도 부정 상관을 보이는 데,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국과 미국에서 어머니의 학력은 어머니 자신의 긍정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가지지만, 독일의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는 듯하다. 스웨덴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통제적 행동의 증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머니의 지지적 행동과 오히려 부정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인구학적 변수들도 각 국가에 따라 관련 맺는 방식이 다양하다.

부모의 성별분업과 관련하여서도, 가사분담과 가구소득에 대한 기여분이 양육행동과 보이는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그 패턴이 국가에 따라 다름을 볼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에서는 아버지건 어머니건 가사 참여도가 자녀에 대한 지지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버지만 가사참여도가 지지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어머니의 가사참여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스웨덴의 경우는 부모의 가사분담정도가 양육행동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 미국, 일본에서는 어머니는 소득 기여분은 지지적 행동과 부정 상관을 보인다. 한국, 미국, 독일에서 아버지의 경우는 소득기여분이 지지적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이고, 통제적 행동과는 부정 상관을 보인다. 스웨덴에서는 소득기여분이 역시 양육행동과 아무런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

가별 인과관계의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일 뿐 아니라, 주어진 자료로는 충분한 분석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관계에서 성별의 효과가 지구사회 여러 국가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관찰하였고, 변화 추이에 대한 전망을 가져볼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 부모자녀관계의 현위치를 상대적인 관점에서 확인하였음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김문혜·강문희 (1999)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영애 (1990) “모-자녀 간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청소년의 사회성 및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박영신·권용은 (2005) “한국 세대별 어머니 집단의 가족관련 가치의 식 비교: 자녀가치와 양육태도 및 부모부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1(1): 109-142.
- 도현심·최미경 (1998)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또래 경험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9(2): 19-33.
- 문수경 (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한국가족복지학》 10(3): 105-125.
- 박보경 (2002) “아동의 인성특성, 부모-자녀관계 및 부모 간 갈등과 또래 괴롭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김의철 (2004a) 《한국의 청소년문화와 부모자녀관계-토착심리 탐구》 교육과학사.
- \_\_\_\_\_ (2004b) 《한국인의 부모자녀관계-자기개념과 가족역할 인식의 토착심리 탐구》 교육과학사.
- 박영애 (1995)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 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백경숙·권용신 (200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6(2) : 87-99.
- 엘킨드(Elkind, D) (1999) 이동원·김모란·윤옥경 (역) 《변화하는 가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윤인진·임창규·정재영 (2007) “자녀 양육방식에 관한 직업계층 및 국가별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18(3): 167-192.
- 윤지은·최미경 (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 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 이금 (1993)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이·김현주·이여봉 (2006)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교환관계 분석” 《한국인구학》 29(1): 97-131.
- 이시형 (1997)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기 심리 사회적 적응” 삼성생명사회정신건강연구소 96(2).
- 이영미·민하영·이윤주 (2005) “부모 간 갈등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 이영숙·김정옥 (200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33-159.
- 장혜순·강태완 (2005)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3(2): 104-130.
- 정갑순·박영신·김의철 (2002) “학업성취과정에 대한 분석: 부모자녀관계, 학업성취 효능감, 과거 성취도를 중심으로” 2002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 발표대회 논문집, 315-321.
- 정윤주 (2002)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지각 차이와 청소년의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0(9).
- 초도로우 (1992) 박숙자 (역) “가족의 정신역학” 《가족과 성의 사회학: 고전사회학에서 포스트모던 가족론까지》 사회비평사, 385-409.
- 최인재 (2005)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 - 부자유친 성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17(4): 1059-1076.
- 탁수연·박영신 (2006) “부모에 대한 죄송함과 존경심이 대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모의 사회적 지원, 성취압력, 자기조절학습효능감, 성취동기, 공부시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사회문제) 발표논문집, 342-343.
- 통계청 (2007, 2004) 《한국의 사회지표》.
- 파슨즈(Parsons, T.) (1995) 박숙자 (역) “미국가족: 인성 및 사회구조와의 관

- 계” 《가족과 성의 사회학: 고전사회학에서 포스트모던 가족론까지》 사회비평사, 151-180.
- 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연구 I” 경제·인문사회 협동연구 총서.
- Alwin, D. F. (1986) “Religion and parental child-rearing orientations: Evidence of a Catholic-Protestant converg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92: 412-440.
- Alwin, D. F. (1990) “Cohort replacement and changes in parental socialization valu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347-360.
- Arendell, T. (2000) “Conceiving and investigating motherhood: The decade’s scholarship”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192-1207.
- Arnorld, F., R. A. Bulatao., C. Buripakdi., B. J. Chung., J. T. Fawcett., T. Iritani., S. J. Lee., and T. S. Wu (1975) *The Values of Children: A Cross-national Study*. Vol 1, Honolulu: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 Aquilino, W. S. (1994) “Later life parental divorce and widowhood: Impact on young adults’ assessment of parent-child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908-922.
- Barratt, M. S. (1995) “Communication in infancy” pp. 5-33 in M. A. Fitzpatrick and A. L. Vangelisti (Eds.), *Explaining Family Interaction*, Thousand Oaks, Calif.: SAGE.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s* 4(1): 1-102.
- Bernard, J. (1974) *The Future of Motherhood*, New York: Dial.
- Boulton, M. G. (1983) *On Being a Mother*, New York: Tavistock.
- Braver, S. L. (1998) *Divorced Adds*, New York: Jeremy Tarcher/Putnam.
- Cappella, J. N. (1987) “Interpersonal communication: Fundamental questions and issues” pp. 184-238 in C. R. Berger and S. H. Chaffee (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Science*, Newbury Park, Calif.: SAGE.
- Cha, C. H. (1983) *The Ethical Conceptions of Korean People*, Seoul: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Chodorow, N. (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ollins, W. A. (1990)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the transition to

- adolescence: Continuity and change in interaction, affect, and cognition” pp. 85-106. in R. Montemayor, G. R. Adams, and T. P. Gullotta (Eds.), *Advanced in Adolescence Development: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Transitional Period?*
- Coltrane, S. (2004) “Fathering: Paradoxes, Contradictions, and Dilemmas” pp. 224-243 in M. Coleman and L. H. Ganong (Eds.), in *Handbook of Contemporary Families. Considering the Past, Contemplating the Future*. Sage publications.
- Coltrane, S. and J. Galt (2000) “The history of men’s caring” pp. 15-36 in M. H. Meyer(Ed.), *Care Work: Gender, Labor, and Welfare States*, New York: Routledge.
- Darling N. and I. Steinberg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487-496.
- Deković, M. (1999) “Parent-adolescent conflict: Possibl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4): 977-1000.
- Deković, M., M. J. Noom and W. Meeus (1997) “Expectations regarding development during adolescence: Parental and adolescent percep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 53-272.
- Demo, H. (1992) “Parent-child relations: Assessing recent chan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1): 104-117.
- Dornbusch, S. and P. Ritter (1991) “Family decision-making and authoritative parenting”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 Eaton, M. (1997) “Positive discipline: Fostering the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53(6): 43-46.
- Fagan, J. A. (1998) “Correlations of low-income African American and Puerto Rican fathers’ involvement with their children” *Journal of Black Psychology* 3: 351-367.
- Fitzpatrick, M. A. and J. P. Caughlin (2002)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pp. 726-777 in M. L. Knapp and J. A. Daly (Eds.),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ousand Oaks, Calif.: Sage.
- Fulgini, A. J. and J. S. Eccles (1993) “Perceived parent-child relationships

- and early adolescents' orientation toward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22-632.
- Furstenberg, F. F. (1988) "Good dads-bad dads" pp. 193-218 in A. Cherlin (Ed.),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and Public Policy*,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Press.
- Glasgow, K. L., S. M. Dombusch, L. Troyer, L. R. Steinberg, and P. L. Ritter (1997) "Parenting styles, adolescents attributions, and educational outcomes in nine heterogeneous high school" *Child Development* 68(3): 507-529.
- Grotevant, H. and C. Cooper (1986) "Individu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 perspective on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identity and role-taking skill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29: 82-100.
- Hagan, J. (1991) "Destiny and drift: Subcultural preferences, status attainments and the risks and rewards of you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567-582.
- Harris, K. M., and S. P. Morgan (1991) "Fathers, sons, and daughters: Differential paternal involvement in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531-544.
- Hayes, S. (199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ewlett, B. S. (2000) "Culture, history, and sex: Anthropological contributions to conceptualizing father involvement" *Marriage and Family Review* 29: 59-73.
- Hofferth, S. L. (2003) "Race/ethnic differences in father involvement in two-parent families: culture, context, or economy" *Journal of Family Issues* 24: 185-216.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Beverly Hills, CA: Sage.
- Hurh, W. M. (1998) *The Korean-Americans*, Westport, CN: Greenwood Press.
- Kandel, D. and K. Andrews (1987) "Processes of adolescent socialization by parents and pe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ddictions* 22: 319-342.
- Kandel, D. and G. Lesser. (1972) *Youth in Two Worlds*, San Francisco: Jossey-Bass.
- Kaufman, G. and P. Uhlenberg (1998) "Effects of Life Course Transitions on

- the Quality of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4): 924-938.
- Kimmel, K. (1996) *Manhood in America: A Cultural History*, New York: Free Press.
- Lamb, M. E. (1977) “The role of the father: An overview” pp. 1-63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Lamb, M. (1981) “Fathers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grated overview” pp. 1-70 in M.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 Lasch, C. (1979) *Heaven in a Heartless World: The Family Resieged*, Basic Books.
- Lee, G. R., J. W. Dwyer, and R. T. Coward (1993) “Gender differences in parent care: Demographic factors same-gender preferenc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 48: 9-16.
- Lerner, R. M. and G. B. Spanier (Eds.) (1978) *Child Influences on Marital and Family Interaction: A Life-Span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 Marcos, A., S. Bahr, and R. Johnson. (1986) “Test of bonding/association theory of adolescent drug use” *Social Forces* 65: 135-161.
- Morgan, S. P., D. N. Lye, and G. A. Condran (1988) “Sons, daughters, and the risk of marital disrup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110-29.
- Nock, S. L. and P. W. Kingston (1988) “Time with children: The impact of couples’ work-time commitments” *Social Forces* 67: 59-85.
- Noller, P. (1995)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pp. 77-111 in M. A. Fitzpatrick and A. L. Vangelisti (Eds.), *Explaining Family Interaction*, Thousand Oaks, CA: Sage.
- Oakley, A. (1979) *Becoming a Mother*. New York: Schocken.
- Parke, R. D. (1996) *Fatherhoo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arke, R. D. and S. O’Leary (1975) “Father-mother-infant interaction in the newborn period: Some findings, some observations, and some unresolved issues”: pp. 653-663. in K. F. Riegel and J. A. Meacham (Eds.), *The Developing Individual in a Changing World. 2.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Chicago: Aldine Publishing Company.

- Peterson, G. W. and B. C. Rollins (1987) "Parent-child socialization" pp. 471-506 in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 Pleck, J. H. (1997) "Parental involvement: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pp. 66-103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Pleck, J. H. and Masciadrelli, B. P. (2003) "Parental involvement: Levels, sources, and consequences"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Rich, A. (1976) *Of Woman Born*, New York: Norton.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 Rollins, B. C. and D. L. Thomas (1979) "Parental support, power, and control technique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pp. 317-364 in W. R. Burr, R. Hill, F. I. Nye, and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ew York: Free Press.
- Rosenthal, D. A. and S. S. Feldman (1990) "The acculturation of chinese immigrants: Perceived effects on family functioning of length of residence in two cultural contex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 495-514.
- Rossi, A. and P. Rossi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Sanday, P. R. (1981) *Female Power and Male Dominanc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fford L. and C. L. Bayer (1993) *Interac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Newbury Park, CA: Sage.
- Steinmetz, S. K. (1979) "Disciplinary techniques and their relationship to aggressiveness, dependency, and conscience" pp. 405-438 in W. R. Burr, R. Hill, F. I. Nye, and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2), New York: Free Press.
- Thompson, L. and A. J. Walker (1989)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45-871.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 Vangelisti, A. L. (1992) "Older adolescents'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 problem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 382-402.
- Walzer, S. (1998) *Thinking about the Bab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Walzer, S. (2004) “Encountering oppositions: A review of scholarship about motherhood” pp. 209-223 in M. Coleman and L. H. Ganong (Eds.), *Handbook of Contemporary Families. Considering the Past, Contemplating the Future*, Sage.
- Walter, J. and L. H. Walter (1980) “Parent-Child Relationship: A Review, 1970-1979”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Decade Review: 807-822.
- Warner, E. L. and B. S. Steel (1999) “Child rearing as a mechanism for social change: The relationship of child gender to parents’ commitment to gender equity” *Gender Society* 13: 503-515.
- Yang, S. and K D. Rettig (2003) “The value tensions in Korean-American mother-child relationships while facilitating academic success” *Personal Relationships* 10: 349-269.
- Youniss, J and J. Smollar (1985)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Yum, J. O. (1988) “The Impact of Confucianis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Patterns in East Asia” *Communication Monographs* 55: 374-388.

[2008. 4. 13 접수 | 2008. 7. 15 채택]

## The Gendered Pattern of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over Adolescent Children: A Comparative Analysis

*Suni Lee · Yeobong Lee · Hyun-Ju Kim*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 of gender on the support and control dimen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children and their parents in 5 countries – Korea, Japan, U.S., Germany, and Sweden. This study predicts that mothers are more supportive and less controlling towards their children than fathers; that parents are more supportive towards their daughters than sons; and that supportive relationship is most pronounced in mother-daughter relations while controlling relationship is pronounced in father-son relations. We used the 2006 multi-national survey data colle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or the analysis, selecting the cases in which the youth respondents were born between 1988 and 1993 and were living with both biological parents. All three hypotheses are supported in Korean cases. In the cases of the other nations, the hypotheses are only partially supported. In all the 5 nations, mothers are more supportive towards their children than are fathers. While parents are more supportive towards daughters than towards sons in most countries, the impact of children's gender in producing differences in parental behavior is less profound than the impact of parent's gender. Gender affects the control dimension of the relationship only in Korea and U.S.

**Key Words:** parent-child relation, adolescence, gender, parental support, parental control, comparative analysis